

기업 탐방

[아티(ATI) 기업탐방]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작성자 : 아트모아 | 2021-10-25

한국 근현대 미술사 기록의 거장, 최초이자 최고

아키비스트 김달진 관장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걸어 다니는 미술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관장 김달진.

평생을 한국 근현대 미술사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는 데 바쳐온

그는 “지속”과 “공유”의 힘을 믿는다.

묵묵히 걸어온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지금의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또한 그로 인해 한국에 처음으로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소개되었고,

정식으로 직업 사전에 등재되었다.

종이 자료 수집을 넘어 또 다른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행보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가치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본인 소개와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김달진입니다. 전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미술 자료를 50 년 넘게 수집해 왔습니다.

처음 수집을 시작했을 때는 아카이브(archive,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과 보관하는 곳)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말하자면, 저는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이 작업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거죠.

또 단순히 수집한 것을 자기만족으로 끝낸 게 아니라 데이터화했어요. 이 작업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하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지금의 김달진이 있는 거죠.

김달진미술연구소는 2001 년에 개소했으며, 저는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2008 년에 서울시에 등록된 공식적인 2 종 박물관이에요.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자료실은 열람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김달진미술연구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 1 월에 창간 20 주년 기념 잡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하고 결과물을 보고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4 개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들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검수이고 다른 하나는 ‘2005-2009 년 전시 자료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전남 미술사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에게 발주했어요. 또 올해 12 월에 개관하는 울산시립미술관으로부터는 ‘울산미술사 연구 프로젝트’를 부탁받았죠.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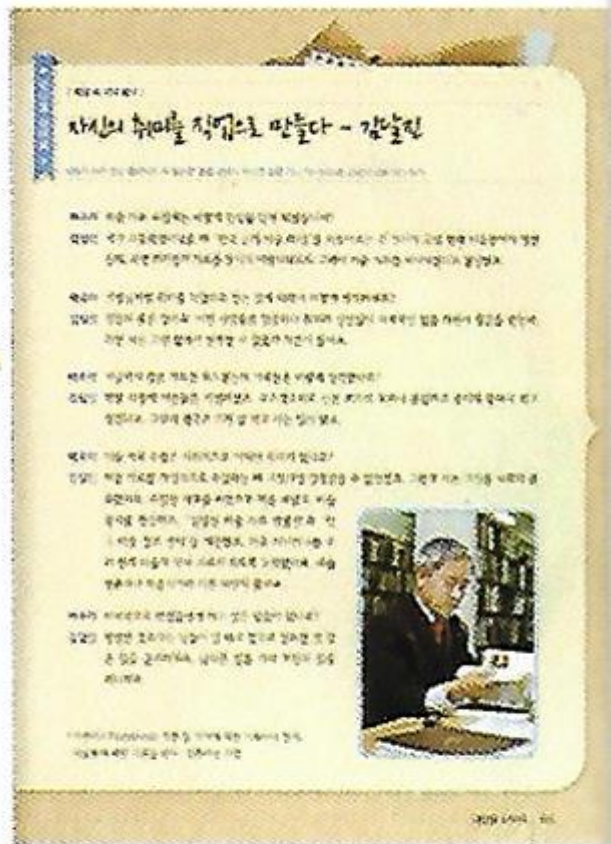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전경

현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금속공예과를 졸업하시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시기 전부터 월간 전시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등에서 근무하셨을 만큼, 그때부터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34 세에 갔어요. 만학을 한 거죠. 금속 공예를 전공하게 된 건, 대학원에 가려면 해당 학부 학위가 필요해서였어요. 이 과정에서 금속 공예라는 실기를 해보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접해보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큰 공부였죠.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석사 논문「국내 미술 자료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썼어요. 당시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지금의 가나아트센터에서 자료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술 자료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더 분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덕교과서 2, 금성출판사, 2013, <만나고 싶어요> |직업 속 가치 탐구|에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다 - 김달진'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소개된 직업 '아키비스트'

관장님의 직무와 큐레이터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주로 전시기획을 하는데 학예연구사와 학예연구관으로 나뉘죠. 그런데 제가 하는 직무는 ‘아키비스트’여서 조금 달라요. 아키비스트(archivist)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자료 관리 전문가예요. 저를 시작으로 아키비스트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직업 사전에 등재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 용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2013년 중학교 도덕 교과서 2(금성출판사 101 쪽)에도 아키비스트로서 제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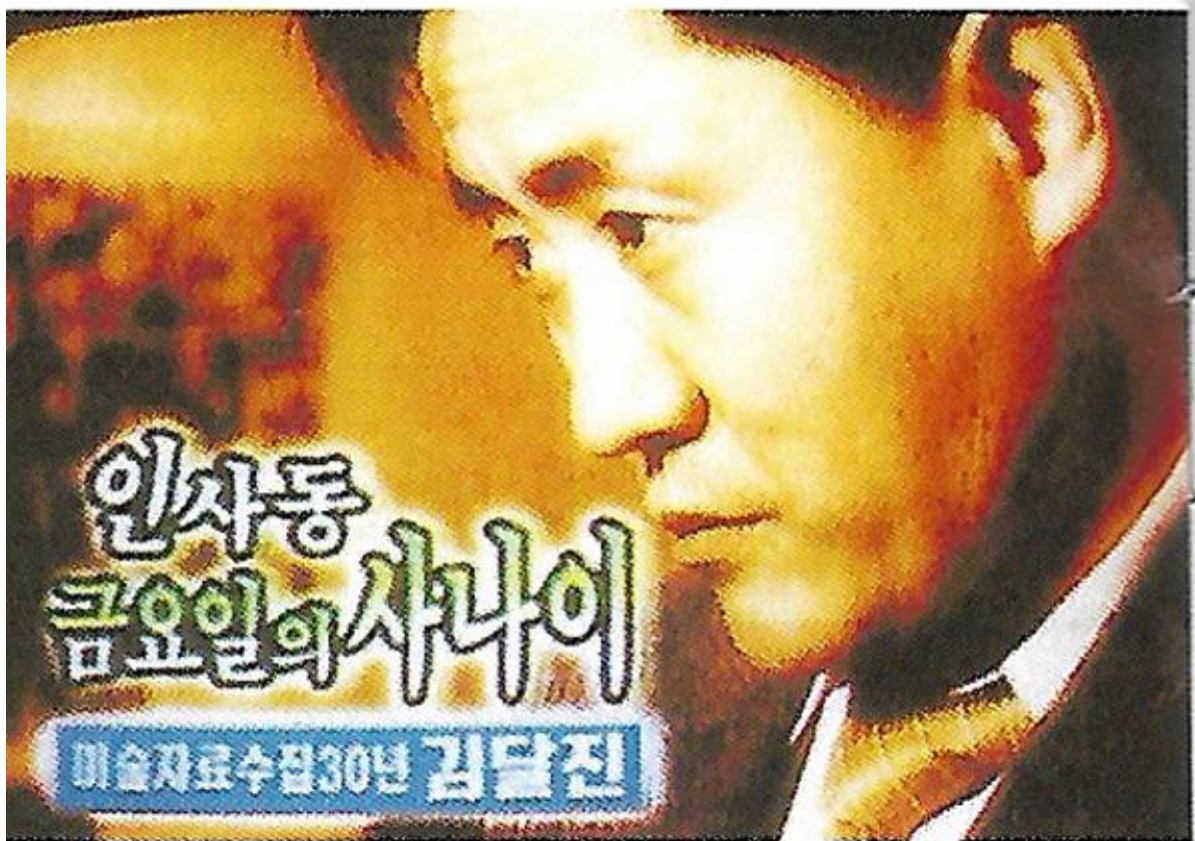
이 일로 2010 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 2016 년에는 홍진기창조인상(중앙일보 유민문화재단)도 수상했습니다.

큐레이터는 법적으로 박물관에 한 명 이상을 뒤편에 한다고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국립미술관에서 별도로 아키비스트라는 직종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거든요.

관장님처럼 아키비스트가 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미술사에 대해 알아야겠죠. 그리고 문헌 정보학이나 기록 관리학을 전공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예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레인데요. 사서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각(나무, 돌, 금속 따위에 인장을 새기는 것)이 서예의 한 분야인데, 사서가 십진분류법(도서 분류에 흔히 쓰이는 분류 체계들의 통칭)에 기반해서 전각을 서예가 아니라 조각에다가 넣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마이웨이, KBS2, 2000

'인사동 금요일의 사나이'로 방영된 장면

중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생 때는 잡지에 있던 그림들을 잘라서 수집하는 정도였죠. 그 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할 당시 기관에 자료가 들어오면 수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되는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 보존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백팩도 없던 시절 쇼핑백을 매고 매주 금요일마다 인사동으로 출장을 나갔죠. '금요일의 사나이' 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어요.

자료 수집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팸플릿도 포함돼요.

처음에는 팸플릿을 모으러 다녔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알려지고 나서는 작가들이 저한테 오히려 주는 역전 구조가 형성되었죠.

계속 자료를 모으다 보니, 제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제가 수집한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18 톤 정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방대해서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존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취사선택이 중요한 시점이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정체성, 지향성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선택해 수집해야 해요.



서울아트가이드 1 호(좌), 237 호(우)

어떤 계기로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게 되셨나요? 이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궁극적으로 지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잡지와 굉장히 인연이 깊었어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월간 전시계>라는 잡지사에서 근무했고, 가나아트센터에서 대략 6년 정도 자료 실장으로 있으면서 <가나아트> 잡지에도 관여했었죠.

이러면서 잡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독립하면서 2002년 1월에 처음으로 <서울아트가이드>를 만들었죠. 당시에는 접지 형식의 무가지에 불과했고, 점점 발전하고 내용이 많아지고 콘텐츠가 포함되면서 지금의 잡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작가들이 전시를 하면 자기를 알려야 하는데, 각 잡지에 광고하려면 광고료가 많이 필요했고 신문사에 발송해도 기사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들을 최대한 널리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전시장을 인사동, 청담동같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도를 만들었죠. 지도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의 전시 일정을 실었어요. 처음에는 기반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죠.

그래도 이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은 광고료도 받게 됐어요. 또 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되는 순환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DB 구축과 그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엑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웬만한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e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대부분을 검색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사이트(daljinmuseum.com)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중요한 자료가 D 폴더예요. 예를 들어 ‘천경자 D 폴더’라고 하면 천경자와 관련된 도록, 팸플릿, 작가론, 전시 기사, 뉴스 등 모든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스크랩북처럼 모아둔 거예요.

천경자 같은 경우는 D 폴더가 8 권이나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대표 작가 330여 명의 D 폴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도 검색이 안 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보니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 때 우리한테서 자료를 많이 대여해 가죠. 자녀분들이 부모님들 자료를 찾으러 오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와요. 이렇게 정리한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 잡지인 <서울아트가이드>에 모두 실을 수는 없어서, 작가를 선별하여 연재 형식으로 딱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실어요.

다만, 공간이 좁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예약하고 와야 해요. 그래도 예약하고 오면, 다른 데서는 못 봤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어서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DB 구축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데, 본 업무를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먼저 우리 작업을 보존의 가치가 아닌 이용자의 숫자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척 속상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가 한 작업을 보고 정말 크게 놀라곤 해요. 어떻게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한 개인이 지금까지 해 왔냐는 거죠.

제가 하는 작업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땀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해야 해요. 스캔을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을 저희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숫자 보여주기보다는 보존의 가치 자체에 정부가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튜브 ‘김달진 TV’를 운영하고 있으신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유튜브는 정확하게 2018년 10월에 시작했어요. 다음 달이면 벌써 3년 차가 되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료 소실과 검색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서 유튜브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제 동영상 시대잖아요. 지금까지는 종이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기는 시대죠.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남기는 모든 것이 동영상 아카이브가 되죠. 그래서 네 가지 형식의 콘텐츠로 꾸준히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구독자가 1,701 명이고, 1,363 개의 동영상을 올렸네요.(2021 년 9 월 15 일 기준) 빠르게 변해가는 미술계에서 빨리 동영상을 업로드하고자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우리 미술계에 필요한 동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축적해서 영상 아카이브로 후세에 남기는 겁니다.



박물관 내 보관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의 일부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100 년 이상 된 자료들은 디지털 라이징을 해서 빨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해요. 이게 남아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직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직원을 채용한다면, 연구소 잡지 분야 직원과 박물관 쪽 직원의 역량을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잡지 분야의 경우 디자이너, 콘텐츠를 만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 광고영업 등이 있지요.

박물관은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준학예사를 채용하겠죠. 추가로 자료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문헌정보학과 출신을 뽑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쪽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쉽게도 미술 실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미술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큐레이터(전시기획자), 아키비스트(자료기록관리사), 에듀케이터(미술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미술기자 등이요.

추가로 모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좋아하는 걸 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리고 꾸준히 밑에서부터 하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진해서 달성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메꿔갔던 사람이에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자기의 욕구, 취향을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끝내는 건 무의미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한 분야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종이 쪼가리 오려서 모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살려고 하느냐고 걱정했어요. 이상하게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선구자이고, 일인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자기가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되어도, 노력했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자신에게 돌아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른 김달진 관장.

자기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김달진 관장은 자신의 손때 묻은 자료 하나하나를 애정이 담긴 손길과 눈빛으로 보여주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우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존경이 저절로 표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RT+MORE

“철학을 기반으로
공연 비평하는 사람”

제 1기 아트모아 기자단

김소정 기자

musicaliebe@naver.com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바로가기